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그는 선지자니이다 II

(요 9:13-17)

이종윤 원로목사

3. 맹인이었던 자의 증거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요 9:15하)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은 간단명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들이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용을 들었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맹인이었던 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 뜬 사람은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자고 할 때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객관성이 약해집니다.

(1) 그는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요 9:17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 곧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가진 것이 많은 바리새인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겨우 눈을 뜬 불쌍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 뜬 사람의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27절)

(2) 그는 하나님이니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3)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발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인자로 보았고 믿었으며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이 알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믿을 텐데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까지 몰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 지식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다.

첫째, 우리는 협조적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간단명료하게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본문의 맹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제 길을 간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이 신자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시민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그 안에서 발견된 바 되어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의 갈 길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침묵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협조적 방해꾼이 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신 목적을 따라 살아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맹인처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평생토록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서울교회의 모든 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교회의 어려운 시간과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웠던 성경대학도 6년 만에 15

일(주일) 아기학교를 시작으로 17일(화) 출애굽기, 19일(목) 마태복음 반을 개강한다.

새로이 시작하는 주중 성경대학에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특별히 말씀 준비

하시는 교역자들과 담당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성경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용곤 목사
(출애굽기 담당교역자)

출애굽기는 탈출의 책임입니다. 출애굽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시내산 언약식을 위한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념비적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자격 없는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섭리임에 깨닫게 됩니다. 본 강좌를 통해 말씀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2년 5월 17일(화) - 7월 5일(화)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 장소: 602호

모세의 변화(1-11장)				
1	5.17	왕자	1장 - 2:15	출애굽기 개관 및 40년간 애굽의 왕자
2	5.24	목자	2:16 - 4장	40년간 광야의 목자
3	5.31	지도자	5 - 11장	10가지 재앙을 쏟음
출애굽과 시내산(12-24장)				
4	6.7	출애굽	12장 - 15:21	유월절과 홍해 도해
5	6.14	시내산	15:22 - 24장	언약 백성을 위한 계명
성막의 건축(25-40장)				
6	6.21	설계	25 - 31장	성막과 기구의 양식
7	6.28	부패	32 - 34장	금송아지 우상숭배
8	7.5	건축	35 - 40장	성막 완성하여 봉헌

마태복음 성경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동수 목사
(마태복음 담당교역자)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권이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던 성경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의 생애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본 성경공부를 통해 함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더욱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 매주차에 해당하는 본문을 미리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 * 강의안은 자체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 2022년 5월 19일(목) - 7월 7일(목)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 장소 : 602호

주차	날짜	주제
1	5.19	마태복음 개관 및 메시아의 출현 (마 1~2장)
2	5.26	공생애 준비와 복음 선포 (마 3~4장)
3	6.2	가르침의 핵심 주제들 (마 5~9장)
4	6.9	제자도와 천국 비유 (마 10~13장)
5	6.16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4~17장)
6	6.23	천국 공동체 (마 18~20장)
7	6.30	예루살렘과 종말에 대한 예언 (마 21~25장)
8	7.7	십자가, 부활, 마지막 말씀 (마 26~28장)

새벽을 깨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난 4월 30일(토), 새벽기도회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가 4년 3개월 여만에 마무리하였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여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성도

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말씀으로 새벽을 깨워주신 교역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이영자 권사
(9교구)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작은방 책상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장 한 장 말씀으로 풀어 주시고 새 옷을 날마다 입혀주십니다.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다시금 일어나지요.

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셨지요. 그러기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

었으며 때로는 가슴 깊이 저러오며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눈시울을 적시곤 했지요. 비단저 뿐이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젊은 시절 새벽기도는 내 가족의 간절함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기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은 후 기도 제목 주시면 모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특히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더욱 응답이 빠른 것을 체험 했습니다.

새벽마다 손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사랑을, 말씀을 전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반주와 영상으로 수

고하신 손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4년이 걸려 창세기로 시작해 계시록까지 마치며 개인적으로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하며 옷깃을 여밉니다.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늘 깨어 이단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경성하기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며 또 다시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서울교회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하나님께...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 EMPM -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최형렬 장로
(2교구)

삼구 이십칠은 육십육, 구이구와 이육공은 일일팔구(성경 장 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2018년 2월 7일(수)에 시작된 창세기 1장이, 2022년 4월 30일(토)에 계시록 22장을 읽음으로, 성경 66권, 1,189장을 4년 2개월 23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2017년 새벽은 On Line으로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토요일마다 교회 정문에서 새벽기도회를 드리기도 하였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도회들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교회 분쟁이 절정에 이르러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절이었고, 동시에 교회 회복이 꿈꾸는 것 같이 주어

지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따라 빠르게 소생되고 회복되어 감을 보면서, 새벽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 깊고 넓어 형언할 수 없으며, 비록 분쟁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창세기를 볼 때는 '불법 영역'동원의 아픔을 당하여 서울교회가 넘어질 것만 같았으나, 대항하여 싸우며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언약을 믿게 되었고, 베델하우스의 식사는 천사를 대접하는 손길로 보였습니다.

2019년의 총회와 노회와 법원으로 달려 다님은 마치 출애굽 후 가나안애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과 순종의 신앙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10월 본당 재 입당 때는 욕기서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았고, 2021년 5월은 재정비리 대법원 항소 건이 기각되고, 담임목사의 청빙으로 당회장으로 손달익 목

사님이 오실 때는, 구약의 말라기를 보았으니 '준비하라'는 말씀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마태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결국 교회 분쟁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으니 당회의 회복입니다. 2018년 1월의 18명 장로가 분쟁을 겪으면서 은퇴하여 7명까지 줄어들었으나, 다시 17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2022년 4월은 계시록을 읽고 있었으니, 어떤 고통 속에서도 성도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이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함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EMPM에 참석합니다.

1,580여 일간의 긴 여정



조순엽 은퇴권사
(1교구)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4년 3개월여 만에 신·구약 66권 총1,189장의 성경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창 1:1)를 시작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1)으로 1,580여 일의 장정이 끝을 맺은 날입니다.

우리 부부는 2001년부터 서울교회 새벽기도회에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꼭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의 하루를 열고 기쁨으로 새 날을 출발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종윤 목사님의 매일 매일의 설교 말씀은 일천한 성경의 지식을 일깨워 주셨고 매일의 일상을 말씀에 의존하면서 자아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에

기치 못했던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명이 들었고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의 대면 예배가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성도들의 참여율도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모신 손달익 목사님의 귀중한 설교 말씀은 새 하늘 새 땅으로의 발판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열성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청중을 사로잡는 조화로운 말씀은 우리 서울교회가 무궁한 발전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오랜 시간 새벽을 깨게 했던 귀한 설교 말씀이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1,580여 일 오랜 날 동안 새벽을 여시고 귀한 설교 말씀을 주신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노고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의 통독도, 또 몇 번의 한글과 영어 필사로도 이해하기 어렵던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 수 없어 읽기에 국한되었던, 또 특

히 요한계시록 말씀의 난해한 부분은 더더욱 힘들었는데 조금씩 깨우쳐 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가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앞도 헤아리지 못하는 양떼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묵묵히 이끌려 여기까지 와 있음도 감사요, 매일의 새벽 바람이 이처럼 시원하고 감격적으로 느낄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훌륭한 포용력과 지도력으로 저희 서울교회가 낱알이 새롭게 부흥될 날이 멀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기도예 힘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 하나만을 꼽는다면 코로나로 텅 비었던 빈자리를 이제는 활기찬 마음으로 꼭 채울 때가 된 듯합니다. 앞으로 있을 '홍해작전', 사명자 대회'를 기대해 봅니다.

길 잃은 양떼들을 찾아 새벽기도회는 물론 본 예배에도 4층까지 가득 메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집사
(소망부 부감)

소망부(부장 손태현 집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가족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어르신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반가운 얼굴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당회의 후원을 받아 교회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5월 18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교회 8층 식당에서 진행하오니, 이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교회로 나오셔서 수요일 1부예배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신 후 그리웠던 교우들과 함께하는 2년여 만의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많이 알려 주시고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5. 8)은 어버이주일로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찬양예배 시간에 교육1국 학생들의 특별찬양 시간이 있었다.



지난 5. 7(토), 스테반회(회장: 백도환 집사)는 교회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하였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16일	월	대하 6-7		을 1-3, 암 1-9	
5월17일	화	대하 8-11		옴, 윤 1-4, 미 1-7	
5월18일	수	대하 12-16		나 1-3, 합 1-3, 슥 1-3	
5월19일	목	대하 17-20		학 1-2, 슥 1-14	
5월20일	금	대하 21-24		말 1-4, 마 1-4	
5월21일	토	대하 25-28		마 5-9	
5월22일	주일	대하 29-30		마 10-13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원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동 정

■ 개업 : 9교구 신항범 집사 '커피에 반하다'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점
- 개업 예배 : 5.12(목) 오후 2시
- 주소 :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135번길
스카이폴리스 나동166호

■ 식사 제공 : 장윤기 집사 · 노애리 집사 가정
노창훈 집사 · 이화용 집사 가정
(교회 회복을 감사하며)

- 고(故) 노송성 장로님께서 생전에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에서 전교인에게 처음 식사를 제공하시고 싶다고 하신 유지를 받들어 자녀분들이 제공하셨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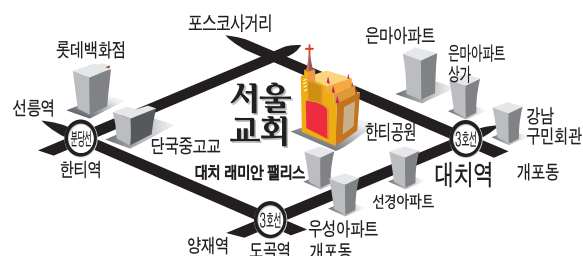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람데오 신앙으로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신행일치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시대와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한반도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